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가족지지가 중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의 매개효과  
: 남녀비교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오 명 애

2018년 8월

# 가족지지가 중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의 매개효과 : 남녀비교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최 보 영

오 명 애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청구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6월

오명애의 교육학 석사청구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8년 8월

## <국 문 초 록>

# 가족지지가 중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의 매개효과 : 남녀비교를 중심으로

오 명 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최 보 영

본 연구에서는 가족지지가 중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를 남녀 성 차이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에 위치한 5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중학생 86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806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무응답 또는 불성실하게 응답한 27부를 제외한 77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로 가족지지 척도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가족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Dubow와 Ullman(1989)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평가도구 (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 중에서 가족과의 관계를 다루는 항목을 번안하여 사용하였고, 자아정체감 척도는 자아정체감 형성을 측정하기 위해 박아청(1996b)이 개발한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를 이승국(1999)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대인관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Schlem, Guerney(1975)의 대인관계 변화척도를 이형득과 문선모(1980)가 번안한 대인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전반적인 자료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

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족지지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의 매개 효과를 성차검증하기 위해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지지와 자아정체감, 가족지지와 대인관계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고, 남녀 중학생 모두에게서 유의한 영향을 확인하였다.

둘째, 남학생의 경우, 대인관계 매개효과는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대인관계 매개효과는 부분매개효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초기청소년기인 중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대인관계가 미치는 영향력을 남녀 성 차이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이에 따라 학교교육 및 생활지도에 성별을 고려한 중학생의 대인관계 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상담전략의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가족지지, 중학생, 자아정체감, 대인관계, 매개효과, 남녀비교**

#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및 가설 .....	5
II. 이론적 배경 .....	6
1. 가족지지 .....	6
2. 중학생의 자아정체감 .....	8
3. 대인관계 .....	12
4. 가족지지, 자아정체감, 대인관계와의 관계 .....	18
1) 가족지지와 자아정체감 .....	18
2) 가족지지와 대인관계 .....	20
3) 대인관계와 자아정체감 .....	22
4) 가족지지 및 대인관계와 자아정체감 .....	24
III. 연구방법 .....	27
1. 연구대상 .....	27
2. 측정도구 .....	28
1) 가족지지 척도 .....	28
2) 자아정체감 척도 .....	29
3) 대인관계 척도 .....	30
3. 자료 분석 .....	31
IV. 연구결과 및 해석 .....	32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	32
2. 가족지지와 자아정체감 및 대인관계 간의 상관관계 .....	34

3. 가족지지와 대인관계, 자아정체감 간 관계의 남녀 비교 .....	35
4. 가족지지와 자아정체감 간 관계에서 대인관계의 매개효과 남녀비교 .....	37
<b>V. 논의</b> .....	40
1. 결과 및 의의 .....	40
2. 제한점 및 제언 .....	44
<b>VI. 참고문헌</b> .....	45
<b>Abstract</b> .....	54
<b>부록(설문지)</b> .....	56

## 표 목 차

표Ⅲ-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	27
표Ⅲ-2. 가족지지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번호와 신뢰도 계수 .....	28
표Ⅲ-3. 자아정체감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번호와 신뢰도 계수 .....	29
표Ⅲ-4. 대인관계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번호와 신뢰도 계수 .....	30
표Ⅳ-1. 주요변인의 기술통계량 .....	33
표Ⅳ-2. 주요변인 간의 상관계수 .....	34
표Ⅳ-3. 가족지지와 대인관계 간 상관계수 .....	35
표Ⅳ-4. 가족지지와 자아정체감 간 상관계수 .....	36
표Ⅳ-5. 가족지지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학생의 대인관계 매개효과 .....	37
표Ⅳ-6. 가족지지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여학생의 대인관계 매개효과 .....	38

## 그림 목 차

그림 I-1. 연구모형 .....	5
그림 IV-1. 가족지지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남학생의 대인관계 매개효과 .....	38
그림 IV-2. 가족지지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여학생의 대인관계 매개효과 .....	39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써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학교·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 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이렇게 청소년 현장에 명시되어 있듯 초기청소년기 중학생이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 전략 개발과 상담 및 생활지도가 필요하고 나아가 중학생 시기의 핵심과업인 자아정체감이 바람직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환경적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중학생은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며 부모를 비롯한 가족구성원으로부터의 정서적·정보적·평가적·물질적 지지를 제공받는다. 이러한 지지는 가족 간의 관심과 안정을 통해 인정받고 있음을 느끼고 서로 교환하는 상호작용의 과정이며(백성희, 2000) 가족지지의 인식은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 기여할 것이며(김애경, 2001) 자아정체감 위기와 생활사건의 완충제 역할과 심리적 적응을 돕는 의미 있는 변수로 볼 수 있다(유은사, 2014). 더불어 가족의 긍정적인 지지는 올바른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손정주, 2010).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개념을 가족지지로 이해한다.

Freud는 중학생 시기의 자아정체감을 부모의 권위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으로 보았고, 인성발달의 사회심리학적 측면을 강조한 Erikson은 자아에 역점을 둔 사회적 대인관계의 영향을 받으며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어 간다고 하였다(김형태, 1989). 이러한 자아정체감을 지명자(2017)는 ‘자기다워짐’으로 자기답게 살 준비를 하는 중요한 시기로 보았고 Suls와 Greenwald(1982)는 사회적

웃감에 의해 짜여 지는 것이라 하였으며 송현옥, 박아청(2009)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며 타인의 반응이나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자기과정으로 보았다. Erikson(1968)은 자신의 동질성과 지속성에 대한 자각과 자기가 관계하고 있는 집단과 사회에 대한 일치성이며,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획득된 자기 가치에 대한 확신으로 입증된 자기평가이다(김형태, 1989).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정의한 개념들을 자아정체감으로 이해한다.

청소년기 중학생의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은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목표를 세워 실력을 키우는 것이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여기며 타인과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으로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이다. 특히 중학생의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의 형성은 공동체 사회에 적응하고 자아실현을 도우며 청소년들의 미래의 성인기를 준비하는 필수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크며(김성원, 2015). 심리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살아가는 바탕이 된다(송현옥, 박아청, 2009).

이러한 자아정체감은 초기청소년기 중학생의 중요한 발달과업으로써, 가족 지지와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최지은(2010)은 중학생의 자아정체감 비교연구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손정주(2010)는 가족지지와 자아정체감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가족의 긍정적인 지지가 클수록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다. Sullivan 또한 인간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행동양식은 가족 내에서 형성된 대인관계의 연장이거나 반동 혹은 보상이라고 주장하였다(양순미, 2017). 이렇듯 중학생의 정체감은 가정과 학교에서의 대인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짐을 짐작할 수 있다(송현옥, 박아청, 2009).

특히 중학생 시기는 대인관계를 통해 자아중심성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자신과 타인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이루어 나가게 되므로 대인관계가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다(김병수, 2009). 그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제공되는 반영적 평가를 통해 자아를 형성해 나갈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불안감이나 위협적인 사건으로 부터 자아를 보호하는 여과장치기능을 한다고 주장하였다(Erikson, 1968; 김형태, 1989). 더불어

어 자신을 상대방에게 적절히 표현할 수 있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이해와 우호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관계 즉 사람들과 어울림에 불편함이 없으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유로운 관계로서 심적태세라고 정의한 임은영(2005)의 개념을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로 이해한다.

이러한 대인관계는 중학생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과 함께 중요한 과업으로 가족지지와 대인관계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족과의 관계는 대인관계의 축소판으로 가족과의 친밀하고 지지적인 의사소통과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자녀의 사회적 기술과 친사회적 행동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고(손정주, 2010), 양순미(2017)는 다문화가구와 비다문화가구의 청소년들이 지각한 대인관계 향상은 가족지지와 가장 높은 수준에서 유의하게 정적상관을 보고하였다. 이렇듯 청소년들은 대인관계 속에서 자기 나름의 안정된 정체감을 형성하고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며(송현옥, 박아청, 2009) 개인이 경험하는 대인관계의 양적, 질적 측면은 개인의 독특한 정체감 형성뿐만 아니라 적응과 건전한 발달에도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이형득, 1982)

초기청소년기 중학생의 대인관계와 자아정체감과의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권석만(1982)과 이형득(1982)은 청소년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때는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 확립과 건전한 성격발달, 자아성취감과 행복감, 욕구만족 등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못할 때는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우울과 불안 등 심리적 병리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조연희(2006)는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 확립이 친구 및 또래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때, 감수성이 예민하고 아직 미성숙 상태인 여중학생들에게 대인관계에 중점을 두는 집단상담은 집단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정체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박아청(2000)은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이나 정체감의 감정은 남성과 여성 간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청소년기 정체감의 남녀 차이를 Erikson(1968)은 신체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여성의 자아정체감 형성은 그들의 신체적 구조가 내적공간 자궁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은 많은 점에서 비슷하지만 남성의 정체감과 구별하여 여성의 정체감을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양지웅, 2004). Freud의 심리성적발달단계인 ‘생식기 단계로 이성애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시

기'(김성봉, 황혜리, 2016)라는 관점에서도 청소년의 남녀 성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형태, 1989) 유명진, 손강숙(2015)은 청소년의 대인관계발달을 이해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 중 하나를 성차로 보았고, 김병수(2009)는 초기 청소년시기인 중학생은 독립적인 사고와 자율성이 함께 발달하는 시기로 대인관계 성향에 영향이 미칠 것이며, 남녀 성차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중학생의 대인관계 성향을 남녀로 구분하여 살펴 본 선행연구를 보면, 강귀애(2014)는 남학생은 의리와 동지애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끈끈한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결속하며, 여학생은 신뢰감과 친밀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마음이 의미 있는 주요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방문희(1991)는 남학생은 독립적인 경향이 높으며, 여학생은 동정적이며 의존적인 경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윤정연(2000)은 남학생은 지배-우월적인 성향이 강하고, 여학생은 과시-도취적인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김성원(2015)은 남학생은 높은 친밀성에 비해 자신의 역할성향에서 책임감이 부족하고, 여학생은 관계중심적인 특징과 동정적 수용적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중학생의 대인관계를 남녀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 또한 여성가족부 산하 전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형별 상담 현황(2017)을 보면 학업 및 진로(27%)에 이어 대인관계(24%), 가족(10%), 정신건강(10%), 성격(10%)순으로 대인관계에 대한 상담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2017년 제주도청소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에 중학생들의 '고민'은 대인관계(7.8%)가 학업 및 진로에 이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도움 요청 대상으로는 가족(40.0%)에 이어 친구 및 또래(38.0%)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가족지지와 대인관계 간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중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 수 있었으며, 대인관계는 청소년의 신체적 발달 특성 및 급변하는 사회, 환경적 요인에 따라 남녀 성차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지지와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의 매개역할은 어떠한가를 남녀 성 차이로 규명하고자 한다. 더불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남녀중학생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함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건강하고 행복한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 2. 연구문제 및 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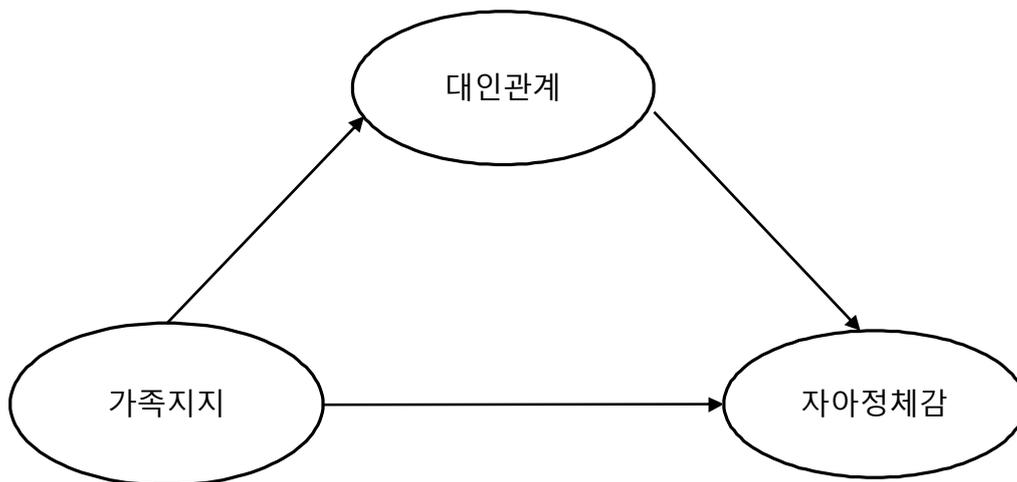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지지가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가족지지와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를 남녀 성별로 규명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남녀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지지가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의 매개역할은 어떠한가?

가설 1-1. 남학생이 지각한 가족지지가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1-2. 여학생이 지각한 가족지지가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족지지가 자아정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대인관계를 매개로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모형을 제안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I-1> 연구모형과 같다



<그림 I-1> 연구모형

## Ⅱ. 이론적 배경

### 1. 가족지지

가족의 주요기능에 대해 Hollen(1981)은 사회적 규범으로 인정된 사랑과 지지의 교환이고, 안정과 동정 그리고 지지의 근원이며(Hampe, 1975), Cobb(1976)은 돌봄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게 하는 정서적지지로서 위기에 대처하고 변화에 적응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Caplan과 Killilea(1976)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느낌과 적응방법, 가치 및 행동에 대한 신념을 알게 해주는 원천이며 문제해결의 안내자, 중재자로서의 역할, 휴식처의 역할, 사랑과 안위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일생을 살면서 위기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지지 체제라고 하였다(권재현, 2014).

가족은 발달전환기에 있는 중학생에게 가장 든든한 지지체계이며 불안과 긴장을 해소하고 만족감을 주며 안정감을 갖게 하는 장이다. 동시에 심리사회적 정체감 형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완충역할을 하는 공동체이다. 더불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자각하고 경험하며(송현옥, 박아청, 2009) 자신의 신체적 특장과 능력, 가치관과 흥미, 역할을 자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작은 사회이다. 또한 가족은 상호작용하며 가족구성원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능력과 위기에 적응하도록 지지하는(유은사, 2014)체계이다. 그리고 지지란 붙들어서 버팀, 힘써서 뒷받침 함, 버터주는 것(daum 어학사전), 용기를 주며 신뢰를 갖게 해주는 것이다.

양순미(2017)는 가족지지를 성장과정에서 다양하게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대인관계망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고 가족구성원과 함께 생활공간의 양식을 공유하며 규정된 역할을 통하여 상호작용하는 교육의 장이며 사회집단이라고 하였다. Kane(1988)은 가족지지를 결과가 아니라 가족이 채주와 자원을 발달시키며 끊임없이 건강을 획득하는 것을 통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라고 하였고 House(1993)는 가족지지를 ‘정서적 관심, 유효한 원조, 환경에 대한 정보 및

평가 중에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을 포함하는 대인적 관계'로 정의하였다(백성희, 2000). 불안정한 청소년기에 가족지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장숙희(1991)의 가족지지는 타인에 대한 호감, 타인의 언행에 대한 인정, 그리고 상징적이거나 물질적인 도움 등의 지지적인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혹은 위기 상황에서 가족구성원이 적응에 실패하게 되는 주요 원인인 불안, 우울, 좌절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감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주요하고 직접적이며 일차적인 사회지지체계이다. 또한 가족지지는 사회 정서적 욕구 만족의 정서적 지지와 위기상황에서 제공되는 충고, 조언, 지도 등의 정보적 지지와 칭찬, 존중, 인정 등의 평가적지지 그리고 필요시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물질적 지지를 포함한다(최지은, 2010).

손정주(2010)는 가족지지를 가족구성원으로서 가장 친밀한 유대관계를 느끼며 가족의 물질적, 정신적인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지원에 대한 인식과 정서적으로 확신과 지원을 받을 때 자녀들은 가정 밖에서 생긴 문제들도 거론할 수 있고 도움과 이해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김애경(2001)은 비공식적 지지로 언어적 비언어적 정보나 충고, 가시적인 유형의 도움이나 행동,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체계를 말하며 가치 있는 활동 혹은 사회적 역할을 성취할 수 있는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권재현(2014)는 애정, 관심, 정서적 안정, 물질적 도움과 청소년들이 소속된 학교환경, 나아가 지역사회구성원과의 원만한 상호작용을 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으로 정의하였다. 김정남, 권윤희(2002)는 부모 및 의미 있는 구성원을 통한 가족지지는 심리적 발달을 형성시키고 청소년의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주며, 자율적인 가정환경 즉 가정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는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에 도움을 주지만 권위주의적이며 허용적인 양육태도는 정체성 혼미에 빠질 위험이 높다고 하였다.

김상순, 이가연, 백경신(1994)은 부모의 지지와 의미 있는 가족구성원들의 지지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가족의 긍정적인 지지가 없으면 청소년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소외감은 특히 초기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주며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 형성에도 영향을 주므로 가족의 지지는 매우 중

요하다고 하였다.

Steinberg와 Silverberg(1986)는 청소년의 긍정적인 정체감 발달을 위한 지지로 부모와 자녀 간 보이지 않는 정서적 관계의 측면에서 청소년의 정서적 자율성으로 이해하였고, Frank, Pirsch, Wright(1992)는 부모 및 가족구성원과의 관계가 청소년의 정서적 자율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정체감 형성에 지지원이 된다고 하였다. 김혜은(2010)은 가족의 지지가 청소년과 부모와 정서적 교류 관계를 만들고,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고, 김상희(2008)는 부모로부터의 단순한 분리가 아니라 부모 및 의미 있는 가족구성원과의 긍정적인 정서적 관계를 맺으면서 개별화를 이루어 부모에 대한 의존을 점차 줄여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보면, 가정의 심리환경적인 요인은 청소년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가족의 자율적인 분위기는 청소년들의 풍부한 감수성을 촉진하여 건강하고 바람직한 자아정체감 형성과 학업에 지향성을 두고 원만한 수행을 이어가지만, 부모의 역기능적인 태도나 가족환경은 정체성 탐색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유예 단계에 머물 수 있다.

따라서 부모 및 가족구성원의 관심과 안정과 긍정적인 지지는 사회적 유능성 즉 또래와의 협동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새로운 역할을 탐색하며 타인의 욕구와 관점을 이해하고 사회적 관계 능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돕고(daum 백과사전), 의미 있는 변화를 촉진하여 중학생의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중학생의 자아정체감

중학생은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탐구하는 인생의 첫 전환기에 해당하는 사춘기를 맞아 신체적 변화 뿐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자문하며(김선영, 2005), 해답을 발견하기 위해 갈등과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자기탐색과 자기확립의 과정을 겪으면서 정체감을 형성하며 스스로 지각한 자

신의 모습이 긍정적이거나 자기가 원하는 모습과 일치하게 되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 즉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지만,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으면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며(황효진, 이용남, 2012), 신체, 정서, 인지, 사회적 성장이 급격히 일어나는 격변기로서 불안정한 정서와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이다(한영주, 채선기, 박순주, 김수진, 최정호, 2015).

중학생 시기인 청소년의 발달적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급격한 신체적 성장의 변화와 생리적 변화로 고민과 고독에 빠지는 시기이다. 둘째, 급격한 신체 변화와 함께 아동기와 달리 연령에 따른 사고의 특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로 창의력, 상상력, 추리력 등 인지적 변화가 활발해진다.

셋째, 정서적 특징으로 신체, 생리적 변화 등으로 인한 감정의 변화가 심하고 행동으로도 나타나며 학업 및 주요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더불어 우울, 불안감 등의 문제를 보이기도 하며 자신의 내부에 숨기거나 감추고 피로감이나 수면부족으로 호소하기도 한다. 즉 정서적 자율성이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난다.

넷째, 정신적 특징은 심리적 이유기로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시작되고 자신감, 열등감 등의 감정을 느끼며 자아를 찾는다. 또한 인격적 발달의 과도기적 단계로 감정, 판단 등에 있어 아동의 모습도 보이고 성인의 역할을 해내기도 하며 자신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려 한다. 더불어 자율적인 동기가 형성되어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정신적 독립을 하려한다.

다섯째, 심리적 특징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느낌이나 감정의 기분전환이 심해지고 모험과 발전에 흥미를 느끼며 질문과 의혹 등이 많아지고 권위에 도전하려한다. 더불어 충동적이며 동성이나 이성 등과의 친밀감을 공유하기도 하고 갈망과 좌절을 경험하며 주관적인 사고와 비판적 태도가 높아진다.

여섯째, 사회적 특징은 자신의 대한 인식과 타인에 대한 인식이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가는 시기이다. 또래그룹 등 소속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집단소속에 대한 동조와 집착을 보이기도 하며 사회문화적 측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타인 지향적 사고가 증폭된다. 또한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점차 멀어져 친구 및 또래 등과 독립적이며 자주적인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간다.

일곱째, Erikson은 청소년기를 아동기와 성인기에 있는 시기, 즉 역할과 자아상 형성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심리적 유예기간이라고 하였다. 청소년이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어렵고 불안한 과업이라 여겼으며, 위기가 ‘재앙의 조짐이 아니라 전환점이기 때문에 개인의 발달과정에서 겪는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해야 할 생존을 위한 원천’이라고 보았다. 특히 자신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의문을 갖고 심사숙고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노안영, 강영신, 2015).

이러한 자아정체감은 청소년기의 핵심발달과업으로써 인간의 발달과정을 생태학적 상호작용으로 설명한 Bronfenbrenner(1995)는 중학교 시절이 자녀의 정신건강발달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위험한 시기라고 역설했고, Erikson(1959)은 자아정체감을 전 생애에 걸쳐 달성해가는 중요한 심리적 특성으로 제시했지만, 특히 청소년기에는 특징적으로 자아정체감에 초점을 둔 발달이 일어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박아청, 2010). Marcia(1980)는 정체감을 자기구조라고 정의하고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것이라고 하였다(김형태, 1989).

또한 Erikson(1968)은 주관적 측면의 정체감으로 자기의 동질성과 연속성을 자각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동질성과 연속성을 타인이 인식한다는 사실의 자각을 뜻한다고 하였다. 더불어 개인이 속한 어떤 집단에 대한 일치성과 민족의 고유한 역사와 가치에 대한 귀속감을 암시하며, 민족적 주체의식이라든가 국가적 주체의식 등으로 나타난다(Erikson, 1975; 김형태, 1989)고 하였다. 이와 아울러 환경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 발달되어가는 자기존재의 통합된 인식의 틀로 이해한다(김형태, 1989).

김형태(1989)는 정체감이란 자기라는 것, 자기의 존재 증명과 진정한 자기, 주체성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계속 수정되며 일관성을 갖는 자기의 통합된 구조라 하였고, 이차선(2000)은 자기의 고유한 방식으로 조직하고 통합하며,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인식하는 과정으로 일관성, 동일성, 연속성을 가지고 행동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박아청(1995)은 자기를 비추어볼 수 있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스스로의 자아상을 형성하는 것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되어 간다고 보았고, 황효진, 이용남(2013)은 자신과 타인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고 타인에 비추어 자신을 형성하는

통합된 자기상으로 정의하였다.

손정주(2010)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돋보이는 것이며, 자신의 존재인식을 바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마미숙(2016)는 가족, 친구, 또래, 교사 등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각되고 평가되는 상호적인 자아이며, ‘완성되거나 고정적이거나 불변하는 것’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재편되어지는 현실감으로 정의하였다. 신경원(2010)은 중학생의 자아정체감 연구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성질로서 주관성과 아울러 객관성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이는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의미, 목적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한 인간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김성원(2015)은 청소년기에 있는 중학생들은 새로운 가치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원가족으로부터 독립을 시도하기도 하고,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사고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만들어간다. 이 시기에 중학생들은 원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친밀감과 자율성,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인생의 가치관과 자아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 중학생들은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등의 물음에 응답을 찾는 과정 속에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꿈꾸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박아청(1996)은 자아정체감을 자기 자신과 관련된 요소와 타인과의 관계와 관련된 요소, 진로와 관련된 요소로 구분하였고, 주체성과 자기수용성 요소인 자기 자신과 관련된 측면에서 자아정체감이 형성된 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수용하고 자신을 신뢰한다고 하였다(박아청, 2003). 황효진, 이용남(2013)은 자아정체감이 형성된 청소년은 관계적 측면, 즉 주도성과 친밀성이 집단 속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며 타인에게 종속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관계를 조절하고 자신을 노출할 수 있으며, 위기에 직면하여 극복해 가는 과정과 자기탐색 및 자기확립의 과정을 겪으며 자아정체감이 확립된다고 하였다.

한영주, 채선기, 박순주, 김수진, 최정호(2015)는 자아정체감이 확립된 청소년은 미래의 자신의 모습에 대한 자아상을 갖고 있으며 스스로 목표를 지향하는 방향을 믿으면서 장래 직업에 대한 자신의 계획에 확신과 희망을 갖는다. 구체적 직업을 정하는 여부보다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희망적 관심을 유지하

고, 자신의 방향을 스스로를 신뢰하면서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신경원(2010)은 건전한 자아정체감을 정립해 간다는 것은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지를 명확히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신의 존재를 가능한 한 긍정적이고 신뢰감 있게 인식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중학생은 발달적 특징과 급변하는 사회적 특성 및 환경 속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지향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감을 형성한다. 더불어 중학생의 자아정체감은 주요 타인의 반응과 비교를 통한 자기과정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며 자신의 목표에 대한 확신과 사회적 역할 수행이다. 따라서 중학생이 주로 머물고 관계 맺는 가정 및 학교와 사회 속에서 자기가치를 발견하고 획득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 및 전략개발과 상담 및 생활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3. 대인관계

초기청소년기 중학생은 과도기적 발달단계로 신체적·지적으로 많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중요한 시기이고, 부모의 지배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이며, 가정을 중심으로 한 사회화가 친구, 또래, 교사 등과의 관계를 통해 확대되는 시기로 사회적 태도, 기술, 통찰력이 함양하는 시기이다. 또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고 서로의 성장을 진정으로 바라고 돕는 관계를 지향하는 시기이다(정은숙, 2011).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상호간에 일어나는 관계 즉 사람과 사람과의 인격적 관계이며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복합적인 패턴을 의미한다(성수나, 2015). 대인관계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만족감을 얻고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존재로서 개개인의 보편적인 심리적 지향성이며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한 상호작용이며, 정서적 특징과 행동 간의 관계이다. 또한 대인관계는 사람과 사람 간의 상호작용으로 서로 성장하는 성

숙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의미 있는 타인이 필요하며 나아가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권석만, 2011).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으로 대인관계의 주체인 나의 심리적 특성 요인과 상대의 심리적 요인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으로 대인동기, 대인신념, 대인기술의 의사소통 과정이라고 하였다(권석만, 2006). Cooley(1902)의 자기발견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며 타인의 역할을 사회적 거울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하였고, Clarkson(1992)은 인간 상호간에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의사교환이 표현되고 주고받는 은유적인 공감이라고 정의하였고, Chris & Melissa(2007)와 Wie(2009)는 타인과의 긍정적 대인관계 형성이 공감과 친근감의 능력과 함께 다른 사람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고 하였다.

Erikson은 청소년기에 타인과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보다 성숙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고(양순미, 2017). Sullivan(1953)은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안정적이고 친밀한 대인관계 경험이 이후의 만족스러운 대인관계 행동과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렇듯 청소년기의 대인관계는 또래 친구들이 자신을 좋아해 주기를 바라고 인정받기를 원하며 신뢰감과 친근감을 구축하여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교류를 원만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중학생 시기에 경험하는 대인관계는 개인의 성장과 적응적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정화식, 2014).

대인관계의 하위요인 정의를 살펴보면, 서로가 바라던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으로 상호작용에 있어서 정확한 지각력과 생산적 활동이며 행위의 자발적 조정 및 이행과 관련 있는 만족감과 마음먹은 바를 능동적으로 전달하고 수용하는 능력으로 언어적·비언어적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생각·의도 등을 서로에게 공감적 이해를 가지게 될 때 바람직한 대인관계의 형성할 수 있다. 신뢰감은 타인을 믿는 심리적 경향으로 바람직한 대인관계의 형성에 매우 중요하며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고 심리적 안정을 가져온다고 한다.

또한 친근감은 타인과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며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자신의 생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며 민감성은

느낌이 날카롭고 예민한 성질을 말하며 타인이 보내는 신호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신뢰감과 친밀감 형성에 바탕이 될 수 있다. 개방성은 자신의 내면 및 행동을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며 자신의 의의를 정확하게 전달함이다. 이해성은 이성적으로 사리를 분별하는 것을 의미한다(김화성, 2014).

Sullivan(1953)은 대인관계의 측면에서 인간의 발달이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중학생 시기의 좋은 친구관계는 아동기 동안 생겼을 수 있는 대인관계 문제를 치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가 나빠서 생기는 불안정감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양순미, 2017). 중학생의 대인관계는 친구, 또래관계로 확장되어 나아가며 사회적 지지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자신감과 자존감을 충족하는데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친밀한 우정 관계 즉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청년기나 성인기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밑거름이 된다(박성배, 2004).

김병수(2009)는 대인관계 측면에서 중학생들은 원가족 안에서 자신이 맺고 있는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강화시키며, 타인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지배적, 독립적, 사회적인 발달을 이루어간다.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대인관계는 그 이후의 사교적이고 동정적인 대인관계 태도와 행동을 촉진한다. 중학생들에게 있어서 대인관계 문제는 가족과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에 직결되어 있다. 이는 중학생들에게 학교생활은 대인관계의 가장 집중적인 장이며 학교생활에서 만나는 또래친구나 교사와의 의사소통 적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김성원, 2015).

중학생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인 대인관계는 부모에서 또래관계로, 즉 가족이 제공해 주던 심리적 지지를 받기 위해 또래에게 관심을 돌리는 변환되는 과도기로써 또래관계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유명진, 손강숙, 2015). 청소년들은 자신을 이해해 주고 배려해주는 가까운 친구를 필요로 하며, 친구끼리는 비밀이나 계획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개인의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도록 서로 돕는다(Werebe, 1987). 황창순(2006)은 청소년기의 또래 지향성이 반드시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거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부모와의 관계에서 관여와 지지 그리고 자립에

대한 균형이 유지되지 않으면, 또래관계로의 전환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중학생 시기의 청소년이 이루어야 할 중요과업 중 하나는 원만한 대인관계이며(홍경자, 2004),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상호협력적인 사회행동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타인의 입장을 이해할 줄 알고 나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서로에게 오해나 편견이 없게 하고 상대와 함께 결정할 일이 있을 때는 일방적인 양보나 선택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타협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정경희, 김성희, 2013). 이 기간 동안에 획득되고 형성되는 사회적응 양식이 청소년기 이후 성인의 적응 양식에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김혜영, 2003).

중학생 시기의 바람직한 대인관계는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고 서로의 성장을 바라며 돕는 관계 즉 서로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개인의 정체감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관계이며 서로의 다른 성격이나 가치관의 차이를 수용할 수 있으며 상호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와 차이를 서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서봉연, 2001). 또한 사회적 존재로서 또래 및 주요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의미 있는 존재이고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고 느끼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김기영, 2009).

중학생의 바람직한 대인관계 형성은 중요한 과업으로써 타인 혹은 의미 있는 인물로부터 보호와 인정을 받으며 성장하고 때때로 개인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김영숙, 백경임, 2009). 만족스럽고 원만한 대인관계 경험은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지만 부정적이고 불만족스러운 대립적인 대인관계 경험은 우울, 좌절, 분노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끼쳐 심리적 혼란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김창대, 김수임, 2001)

또한 김연숙(1991)과 Turner(1981)는 심리적 혼란을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과의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고 김상순, 이가연, 백경신(1994)은 사회적 지지결여와 정신건강과의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면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유의한 차로 가족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신체적

으로 취약하기 때문으로 보고하였다. 더불어 청소년기 대인관계의 중요한 부분인 부모관계와 또래관계는 뚜렷한 성차가 있음을 보고하였고(황창순, 2006) Freud와 Erikson의 이론에서는 청소년의 발달특징에 따른 남녀 성차와 청소년기 대인관계의 특징에 따른 남녀 간의 뚜렷한 성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중학생 시기의 청소년기 대인관계에 대한 성차를 Gilligan(1982)은 발달과업 측면에서 여학생들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친밀성을 발달시키고, 남학생은 독립성, 주장성, 의무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Benenson(1990)은 남학생들은 집단수용과 관련된 지위나 속성에 더 관심이 많고, 여학생은 비교적 소집단의 여자아이들과 친해지려는 친애에 더 관심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대인관계에 대한 남녀 성차를 친구관계의 측면에서 Berndt(1982)는 친구 상호간의 실제적인 반응양식에서 여학생들이 친구에게 더욱 친사회적이고 독점적인 친구관계를 보이고 남학생들은 자신의 친구관계에 다른 친구를 쉽게 포함시키며 친한 친구와 친하지 않은 친구 모두에게 친사회적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Rubin(1982)은 친구관계에서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집중적이며 독점적, 배타적, 이원적 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청소년기 대인관계에 대한 성차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신재은(2000)은 가장 친한 친구에 관한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고, 황윤경(1996)은 친한 친구와 일반 급우의 지지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한 친구에 대한 지각이 높게 나타나 여학생의 친구범위에 대한 지각이 남학생보다 좁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최보가(2001)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능면에서 여학생은 긍정적면에서 친구관계를 많이 경험하고, 남학생은 부정적면에서 친구관계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란(2002)과 김정윤(2000)은 경쟁영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곽은주, 이춘재(2000)는 남학생의 경우는 가족이나 교사와의 관계보다 친구관계에 더 많은 비중을 두며 친구로부터 수용되고 정서적 지지를 받을 때 자신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바람직한 적응을 보이지만 또래로부터 거

부당하거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위축되며 회피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여학생은 소규모의 친밀성을 남학생은 적극성을 추구하며 광범위한 관계 성향을 보이고 있고,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또래관계에 민감하며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학생의 대인관계를 남녀 비교를 살펴보면, 박은주(1994)는 긍정적 지지 비교에서 남학생의 경우 부모의 애정을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대인관계에서 긍정적 지지를 많이 느끼며, 여학생의 경우 부모의 애정보다는 합리적 설명이나 자신을 방치하지 않을수록 대인관계에서 긍정적 지지를 많이 느낀다고 하였다. 김영미(2009)는 대인관계 시 갈등을 주는 요인 비교에서 남학생의 경우 부의 비밀관성과 모의 방치이며, 여학생의 경우 부모의 과잉간섭과 방치에 갈등을 느낀다고 하였다. 대인관계의 질에 대한 영향력은 남학생의 경우 모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에 영향을 크게 받으며, 여학생의 경우 모의 방치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대한 남녀 비교를 살펴보면, 임동숙(2000)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학생이 과시·자기도취적 성향이 강하다고 보고하였다. 김병수(2009)는 고등학생의 대인관계 성향 비교에서 여학생이 사회관계 성향과 표현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들보다 타인과의 관계수용, 사교적, 우호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행동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황인정(2007)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표현성향, 역할성향, 사회관계성향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연희(2008)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과시적-자기도취적이고 경쟁적-공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명진, 손강숙(2015)의 대인관계와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 연구에서 남학생의 경우는 또래지지를, 여학생의 경우는 부모지지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사회성발달 측면에서 성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청소년기 중학생의 대인관계는 자아정체감과 함께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이고 형성해야 할 사회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남녀 성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

는 자신을 상대방에게 적절히 표현할 수 있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이해와 우호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관계 즉 사람들과 어울림에 불편함이 없으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유로운 관계로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평등한 관계로 정의한다.

#### 4. 가족지지, 자아정체감, 대인관계와의 관계

##### 1) 가족지지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가족은 초기청소년기 중학생의 자아정체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며 인간이 태어나 보호받고 안정감을 느끼며 수용과 사랑 등의 감정을 경험하는 최초의 장으로서 사회화 과정을 수행하는 환경이다. 서연희(2011)는 가족지지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높아진다고 하였고, 권영은(1990)의 가족지지는 상호작용하며 개인 및 집단적으로 그 가족구성원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능력으로 보았으며, 백성희(2000)는 가족지지를 청소년의 발달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개념으로 예측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지지와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지은(2010)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아정체감 비교 연구에서, 가족지지와 자아정체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원의 긍정적인 지지는 애정과 안위와 격려를 해 줌으로써 불안, 우울, 분노 등을 이겨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응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증강시켜주는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이며 일차적인 사회체계라고 하였다. 부모 및 가족구성원의 지지와 의미 있는 주요 타인 등 가정의 심리, 환경적 지지는 정체감 형성의 발달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김정남, 권윤희(2002)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아정체감 연구에서 가족지지와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는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으며 정적 상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정체감의 발달적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 중 하나가 가족지지의 정서

적이고 심리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시사하며 부모를 통한 가족지지가 청소년기 정체성 발달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였다.

김효숙(2003)은 기독교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아정체감 연구에서 가정에서 청소년을 지지하는 부모 및 가족구성원들은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청소년은 생활면에서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심한 정서변화와 역할혼동을 겪게 된다. 또한 성격적 부적응을 보이고 불안한 사람이 되며 대인관계에서 부적응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더불어 청소년의 비행과 범 죄는 자기정체성이나 도덕관의 결함에 오는 경우가 많고 적응과 발달과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족지지를 포함한 심리적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손정주(2010)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족지지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향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척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가족의 긍정적인 지지는 올바른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아동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가족의 환경과 가족의 가능성, 가족의 역할 등이 자아정체감의 혼란을 겪는 청소년의 시기에 정서적, 인격적으로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가족지지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을 향상시켜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가족지지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가족의 긍정적인 지지가 이루어질수록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이 형성될 것이며, 나아가 사회성과 이타심 등이 향상되고 자율성과 독립성이 증진되어 정체감 발달을 촉진시킬 것이다. 따라서 부모 및 의미 있는 가족구성원의 지지는 과도기에 있는 청소년기 중학생의 심리적 안정감과 신뢰감을 증강시켜 또래 및 대인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가족지지는 청소년기 중학생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유능성을 촉진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지향하여 핵심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 2) 가족지지와 대인관계와의 관계

가족지지는 가족관계 안에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가족의 물질적인 지원과 정신적인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지지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중학생 시기는 과도한 수업 스트레스와 함께 자기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라는 중대한 과업을 함께 수행해야하는 시기로 가족의 지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Sullivan(1953)은 개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행동양식은 가족 내에서 형성된 것으로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안정적이고 친밀한 대인관계 경험이 이후의 만족스러운 대인관계 행동과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개인이 지각한 가족관계에 역점을 두어 가족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양순미, 2017).

또한 Sullivan(1953)은 인간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각 개인이 다른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 상이한 발달을 경험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생애발달주기의 경험양식에 따라 대인관계의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는 유의미한 대상이 달라지며, 청소년 전기에는 또래친구나 동성의 친구와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점진적으로 소수의 친구로 대인관계의 폭이 축소되며 Bowlby의 애착이론 관점에서 가족지지가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양순미, 2017).

청소년기의 긍정적인 대인관계 경험은 심리적 성숙과 함께 성인기 대인관계의 기초가 되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며(우영숙, 2014), 부정적 대인관계 경험은 타인과의 접촉을 회피하거나 억압하게 만든다고 하였다(신현순, 2000). 더불어 김유경(1993)은 어린 시절의 긍정적인 대인관계 경험은 사회적응에 도움을 주지만 부정적인 대인관계 경험은 좌절감과 두려움을 유발하고 열등감을 갖게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기부터 형성된 부모와 친구 및 또래와의 관계 경험과 가족환경 및 구성원의 지지가 토대가 되어 청소년의 대인관계의 기초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지지와 대인관계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양순미(2017)는 다문화가구 청소년과 비다문화가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족지지와 대인관계가 높은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청소년기 대인관계의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는 유의미한 대상이 친구 및 또래관계라는 Sullivan의 대인관계 이론적 관점보다 청소년기에도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이 지속적으로 대인관계의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는 유의미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Bowlby의 애착 이론적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손정주(2010)는 가족지지와 대인관계능력과의 연구에서, 가족지지가 청소년의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긍정적인 지지가 청소년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으며, 청소년은 가정의 환경에 따라서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과 수용하는 태도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 이렇듯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가족구성원의 지지와 환경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고 습득된 기질적 요소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가족지지에 대한 유사 연구로 박예인(2016)는 가족지지와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가족지지는 진로준비 행동과 정적상관을 보여 가족지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순, 이가연, 백경신(1994)는 가족지지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연구에서 가족지지와 정신건강과의 관계는 유의한 수준에서 역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지지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점수는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박영애, 황옥경(1996)은 가족지지와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행동 연구에서 가족지지는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행동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성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초기청소년기 중학생의 대인관계를 남녀 성차로 살펴보는 것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올바른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대인관계에 대한 유사 연구로 성차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연구 한 남혜진(2007), 가족만족도 연구의 장용언(2012), 부모-자녀 애착관계의 강귀애(2014), 가족건강성 연구의 원상숙, 최용민(2015)의 연구에서 대인관계의 유의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광금주, 이춘재(2000)의 부모와자녀의 애

착관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수준이 높고 여자집단보다 남자집단의 영향력이 더 강하다는 연구와 이봉순(2004)의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서 부모애착과 대인관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김병수(2009)는 가족건강성 연구에서 남학생의 경우 대인관계성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중학생 시기의 가정환경과 부모 및 가족구성원의 지지는 청소년의 대인관계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인 지지와 관계 경험은 심리적 성숙과 함께 성인기 대인관계의 기초가 되며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이러한 가족지지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대인관계는 남녀 성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중학생 시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가족지지와 대인관계 간의 관계 연구가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중학생 시기의 대인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활발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 3) 대인관계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중학생은 초기청소년으로서 대인관계 속에서 자기 나름의 안정된 정체감을 형성하고 획득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며 한편으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심리적 안녕감을 추구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송현옥, 박아청, 2009). 또한 대인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고 사회에 적응하며(남혜진, 2007), 한 사람으로 생존하고 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해 상호작용을 형성할 타인이 필요하며, 타인과의 건강한 대인관계 확립을 통해 완성된 인간으로 발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선미, 2003). 더불어 자립과 공생이 서로 함께 형성되어 가기 위해서는 개체로서의 정체감과 관계성에 근거한 정체감이 함께 발달, 성숙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박아청, 2006).

중학생 시기의 청소년은 전 생애 발달단계에서 변화가 가장 많은 시기이며 신체적 성장과 함께 대인관계의 폭이 부모에게서 또래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인간관계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감을 발달시키게 되며 특히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시기이며(박원모, 2008),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과 건전한 인격적 성장 및 자기실현을 이루기 위해서 올바른 대인관계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한영주, 채선기, 박순주, 김수진, 최정호, 2015). 특히 중학생의 대인관계는 성인기 대인관계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부분이다(정경희, 김성희, 2013).

박아청(1995)에 의하면, 청소년은 대인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 등 자신의 독특성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며 통합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자아정체감은 자기를 비추어볼 수 있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스스로의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이 자아상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에 따라 청소년기 발달 과업의 형성이 좌우된다. 이것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전제 아래 자아정체감이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되어 간다고 정의하였다. 이는 초기청소년기인 중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한 여러 요인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 대인관계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중학생의 건강하고 진취적인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인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한상철(1998)은 발달 단계 상 청소년기는 부모와의 애착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동료집단이나 이성과의 사회적 관계를 요구하고 부모의 책임권한과 통제가 점차 감소되면서 스스로의 목표나 가치를 탐색하고 새로운 자아개념의 구조화와 만족스런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한 탐색을 추구하는 시기로 보았다. 윤운성·이은하(2001)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에니어그램 훈련프로그램에서 대인관계는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고 수용하는 측면 즉 자신과 타인의 성격을 이해하고 관계의 역동을 이해하도록 도와 자아정체감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연희(2006)는 여중생의 대인관계와 자아정체감 연구에서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고 집단을 형성해 살아가며 무엇을 하든 다른 사람과 어울려 해야 하며 자신의 행동이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다른 사람 나아가서는 자기가 속한 집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불어 여러 형태의 끊임없는 대인관계를 맺게

되며 효과적인 대인관계의 경험은 건전한 인격발달과 자아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대인관계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또래 및 성인 집단과 적응하지 못할 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또한 김성원(2015)은 친구 및 또래들에게 괴롭힘이나 거부, 적개심의 경험이 있는 중학생들에게는 자아정체성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적절한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는데 심각한 장애를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대인관계는 중학생의 성장과 학업에 영향을 미치므로 불편한 관계를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도록 돕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중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주요 변인들 중에 대인관계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성장 급등기에 있는 중학생의 여러 특징들을 고려한 대인관계와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 연구가 다각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대인관계의 성향을 남녀로 구별하여 중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4) 가족지지 및 대인관계와 자아정체감

가정의 심리적 환경은 자아정체감 발달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여러 학자들은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 사회환경, 학교환경, 가정환경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그 중 인간형성의 기본적인 틀이 되는 것이 가정환경으로 청소년의 성장과정에 있어 가족이 최초 교육의 장으로써, 청소년의 정신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병수, 2009). 사회적 환경체계에서 가장 직접적인 관계망은 가족이지만 학교에서 학급 친구들과 대인관계를 형성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세계를 넓히고 교사와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 경험을 통해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송현옥, 박아청, 2009).

초기청소년기 중학생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일어나는 시기로서 가족관계보다 교우관계를 주요한 인간관계로 생각하며 친구를 선택하는 기준이

외적 기준에서 성격, 인간성, 가치관, 종교, 취미, 관심사 등의 심리적 특성으로 옮겨 가는 경향이 나타난다. 아울러 선후배간의 위계적 관계가 생겨나고 선생님과의 관계도 좀 더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또한 대인관계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대인관계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불안, 우울, 욕구좌절, 소외 등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 심리적 병리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전명순(2012)은 이 시기에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으면 중학생들에게는 스트레스의 주요한 원인이 되며 낮은 자존감과 심리 사회적인 문제, 소외감 등을 야기 시킨다고 하였다. 이문행(1994)의 의하면,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성향은 청소년이 속한 사회와 문화 속에서 사회화과정 및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표출된다고 볼 수 있다. Johnson(1990)은 대인관계의 발달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 자기이해와 타인인지 및 공감적 이해 그리고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갈등에 대한 문제해결 기술이라고 했으며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미(2003)는 한 인간으로 생존하고 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하여 상호작용을 할 타인이 필요하며 타인과의 효과적인 대인관계 정립을 통해서 완성된 인간으로 발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안범희(2010)는 지각관계와 표현, 정서관계 그리고 역할관계와 자율, 통합관계를 적절히 잘 행해졌을 때 효과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고 김성원(2015)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때 자아정체감 확립과 행복감, 건전한 성격발달과 자아성취감 그리고 인간의 욕구만족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대인관계에 대해 김병수(2009)는 가족의 역할에서 부모는 자녀의 대인관계의 성향을 사회화시키는 1차적 수단이 되고 있고,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이며 보상과 벌을 주는 내용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강귀애(2014)의 부모-자녀 애착과 대인관계 연구에 의하면 남학생은 또래관계에서 의리로 뭉쳐진 친구들과 인해 교사의 영향력에 덜 예민한 반면, 여학생은 학교에서 교사와의 관계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교사의 격려나 관심이 없을 때 학교생활을 힘들어 하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과 성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중학생의 자아정체감은 부모 및 의미 있는 가족구성원과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 및 또래와 교사 등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학생이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는 자기고양감과 가족구성원의 긍정적인 지지가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지만, 대인관계를 통한 자아정체감 형성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필요한 발달과정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중학생의 대인관계는 남녀 성차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인관계와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 연구가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기청소년기 중학생이 건전하고 바람직한 정체감을 형성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고 자기지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송현옥, 박아청, 2009). 더불어 가족구성원의 지지와 사회적 관계 능력 즉 자신을 적절히 표현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과 두려움이 없는 자유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심층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중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에 대한 연구는 남녀 성 차이를 고려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의 매개역할을 남녀 성 차이로 살펴보고, 대인관계의 성향 및 방식이 남녀 중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 위치한 5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과 2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학교의 중학생에게 가깝게 설문을 실시할 수 있는 담당자에게 연구의 취지 및 실시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여 설문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설문은 2017년 9월 중순부터 11월 초순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설문시간은 15~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총 86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806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무응답 또는 불성실하게 응답한 27부를 제외하고, 총 779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남녀 중학생들의 연령은 만 12세에서 14세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보면 아래의 표 Ⅲ-1과 같다.

<표Ⅲ-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구분	사례수
성별	남자	304 (39.0%)
	여자	475 (61.0%)
학년	1학년	185 (23.7%)
	2학년	594 (76.3%)

위의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 가운데 남자는 39.0%인 304명 이었으며, 여자는 이보다 많은 475명(61.0%)이었다. 학년별 분포를 보면 1학년이 23.7%인 185명이었으며, 2학년은 594명(76.3%)이었다.

## 2. 측정도구

### 1) 가족지지 척도

가족지지 척도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가족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Dubow와 Ullman(1989)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평가도구(social Support Appraisasl Scale) 중에서 가족과의 관계를 다루는 항목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 정서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정서적지지, 위기 상황에서 제공되는 충고·조언·지도 등 사회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적지지, 칭찬·존중·자신의 행위를 인정해 주는 정도의 평가적지지, 필요시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는 행위 즉 돈·물건·서비스·시간 등의 물질적지지로 4개 하위영역의 15개 문항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5품등 Likert 방식을 적용하였고, 평균 점수는 1점에서 5점 범위로 환산하였다. 각 문항에 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를 비롯한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함을 의미한다. 최지은(2010)이 측정한 이 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79~.9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75~.96로 나타났다.

<표Ⅲ-2> 가족지지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번호와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

하위요인	문항번호	신뢰도
정서적지지	1, 2, 3, 7, 12	.91
정보적지지	4, 6, 8	.84
평가적지지	9, 10, 11, 13	.90
물질적지지	5, 14, 15	.75
가족지지 전체		.96

## 2) 자아정체감 척도

자아정체감 척도는 박아청(1996b)이 개발한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를 이승국(1999)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주관적인 역할 혹은 환경을 적극적으로 지배하여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느낌의 주체성, 자기의 실체와 성격특성 및 제반 능력과 취약점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자기수용성, 자신의 장래에 대한 계획에 확신을 갖고 있는 미래 확신성, 주어진 과업을 수행 또는 실현하려는 의지의 목표지향성,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지능력의 주도성, 타인과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자신과 타인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친밀성으로 6 개의 하위 영역의 48문항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까지 5 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으며 낮을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이영숙(2002)이 측정한 이 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73~.7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83~.95로 나타났다.

<표Ⅲ-3> 자아정체감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번호와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

하위요인	문항번호	신뢰도
주체성	1, 7, 13, 19, 25, 31, 37, 43	.83
자기수용성	2, 8, 14, 20, 26, 32, 38, 44	.87
미래확신성	3, 9, 15, 21, 27, 33, 39, 45	.91
목표지향성	4, 10, 16, 22, 28, 34, 40, 46	.84
주도성	5, 11, 17, 23, 29, 35, 41, 47	.87
친밀성	6, 12, 18, 24, 30, 36, 42, 48	.83
자아정체감 전체		.95

역체점 문항: 2 3 4 5 6 8 10 11 12 15 16 17 18 20 22 23 24 26 28 29 30 32 33 34  
35 36 38 40 41 44 46 47 48

### 3) 대인관계 척도

대인관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Schleim, Guerney(1975)의 대인관계 변화척도를 이형득과 문선모(1980)가 번안한 것이다.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으로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만족감,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나 대화를 하는데 있어서 느끼는 의사소통, 자신이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정도와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 신뢰감, 다른 사람과 나와의 친근감, 내가 다른 사람의 욕구를 깨닫는 정도와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감수성의 민감성, 다른 사람에 대한 나 자신의 표현이나 느낌의 개방성,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의 느낌을 이해하는 이해성으로 7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방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 그렇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항상 그렇다(5점)로 점수화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건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형득과 문선모(1980)는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6로 보고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2로 나타났다.

<표Ⅲ-4>대인관계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번호와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

하위요인	문항번호	신뢰도
만족감	1, 2, 3, 4	.86
의사소통	9, 14, 18, 19, 24	.59
신뢰감	15, 17, 23	.66
친근감	5, 11, 16	.68
민감성	6, 10	.64
개방성	12, 20, 21, 22	.43
이해성	7, 8, 13, 25	.75
대인관계 전체		.92

###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족지지가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18.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살펴보기 위해 응답 점수 범위 및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에서 사용된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계수(Cronbachs'α)를 산출하였다.

셋째, 가족지지와 자아정체감, 대인관계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가족지지는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 (Sobel, 1982)를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1.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가족지지, 자아정체감, 대인관계에 대한 기술 통계분석은 다음의 <표 IV-1>과 같다.

가족지지 전체 평균은 4.16( $SD=.75$ )이었다. 가족지지의 4개 하위요인 가운데 정서적지지의 평균이 4.23( $SD=.77$ )으로 가장 높았으며, 물질적지지의 평균이 4.10( $SD=.75$ )으로 가장 낮았다. 자아정체감의 평균은 3.36( $SD=.57$ )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 하위요인 가운데 자기수용성의 평균이 3.80( $SD=.76$ )으로 가장 높았으며, 친밀성의 평균이 3.08( $SD=.77$ )로 가장 낮았다. 대인관계의 평균은 3.78( $SD=.55$ )이었으며, 하위요인 가운데 신뢰감의 평균이 3.96( $SD=.68$ )로 가장 높았고, 개방성의 평균이 3.50( $SD=.60$ )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가족지지, 자아정체감 및 대인관계의 왜도와 첨도 분석 결과 모두 정규성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 변인으로 투입된 가족지지, 자아정체감 및 대인관계의 기술통계량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의 표 <표IV-1>과 같다.

<표IV-1> 주요변인의 기술통계량

구분	하위요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반응척도
가족지지	정서적지지	4.23	.77	-1.13	1.11	1-5
	정보적지지	4.11	.83	-.85	.23	1-5
	평가적지지	4.17	.82	-.97	.54	1-5
	물질적지지	4.10	.75	-.87	.85	1-5
	전체	4.16	.75	-1.04	.83	1-5
자아정체감	주체성	3.63	.62	-.02	.19	1-5
	자기수용성	3.80	.76	-.77	.81	1-5
	미래확신성	3.31	.87	-.03	-.29	1-5
	목표지향성	3.17	.71	.16	.09	1-5
	주도성	3.16	.73	.18	.14	1-5
	친밀성	3.08	.77	.07	-.15	1-5
	전체	3.36	.57	.26	.42	1-5
대인관계	만족감	3.90	.76	-.24	-.44	1-5
	의사소통	3.70	.61	-.08	.31	1-5
	신뢰감	3.96	.68	-.45	.19	1-5
	친근감	3.94	.68	-.46	.72	1-5
	민감성	3.75	.75	-.04	-.46	1-5
	개방성	3.50	.60	.11	.01	1-5
	이해성	3.81	.70	-.24	-.03	1-5
	전체	3.78	.55	-.11	.08	1-5

## 2. 가족지지와 자아정체감 및 대인관계 간의 상관관계

가족지지와 자아정체감 및 대인관계 간의 상관관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IV-2> 과 같다.

<표IV-2> 주요 변인간 상관계수( $r$ ) (n=927)

구분	1.	1.1.	1.2.	1.3.	1.4.	2.
1. 가족지지	-					
1.1. 정서적지지	.97***	-				
1.2. 정보적지지	.94***	.89***	-			
1.3. 평가적지지	.94***	.87***	.85***	-		
1.4. 물질적지지	.91***	.84***	.83***	.79***	-	
2. 자아정체감	.43***	.40***	.38***	.44***	.39***	-
3. 대인관계	.52***	.49***	.47***	.52***	.46***	.63***

\*\*\* $p < .001$

위의 <표I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지지의 4개 하위요인 및 이를 합산한 가족지지전체와 자아정체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43, p < .000$ ). 이는 가족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아정체감도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가족지지의 4개 하위요인과 자아정체감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가족지지의 4개 하위요인 및 이를 합산한 가족지지전체와 대인관계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52, p < .000$ ). 이는 가족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대인관계도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가족지지의 4개 하위요인과 대인관계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자아정체감과 대인관계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63, p < .000$ ). 이는 자아정체감이 높아지면 대인관계도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다중공선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beta$  값이 .50과 .57이고 여학생의 경우  $\beta$  값이 .52와 .56으로 0보다 1에 가까우나 1보다는 작고 -1보다는 크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 3. 가족지지와 대인관계, 자아정체감 간 관계의 남녀 비교

가족지지와 대인관계 및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에 있어서 남녀 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 피험자를 남녀로 구분하고 가족지지와 대인관계 및 자아정체감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고, 상관계수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먼저 가족지지와 대인관계 간의 관계에 있어 남녀 간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남녀 각각 가족지지와 대인관계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고, 남녀 간 상관계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표IV-3> 가족지지와 대인관계 간 상관계수( $r$ )

구분	가족지지 전체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	
대인 관계	남자	.50***	.48***	.45***	.50***	.41***
	여자	.48***	.46***	.44***	.48***	.43***
$p$	.37	.37	.45	.40	.42	

\*\*\* $p < .001$

위의 <표I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녀 모두 가족지지와 대인관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아울러 물질적지지와 대인관계 간의 상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남자의 상관계수가 여자의 상관계수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자와 여자 상관계수 간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가족지지와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에 있어서 남녀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IV-4>와 같다.

<표IV-4> 가족지지와 자아정체감 간 상관계수( $r$ )

구분	가족지지 전체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
자아 정체감					
남자	.38***	.36***	.34***	.39***	.31***
여자	.41***	.38***	.36***	.42***	.37***
$p$	.35	.35	.40	.34	.20

\*\*\* $p < .001$

위의 <표I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녀 모두 가족지지와 자아정체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아울러 여자의 상관계수가 남자의 상관계수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자와 여자 상관계수 간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4. 가족지지와 자아정체감 간 관계에서 대인관계의 매개효과 남녀 비교

다음으로 가족지지와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를 남녀를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IV-5>와 같다.

<표IV-5> 가족지지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남학생의 대인관계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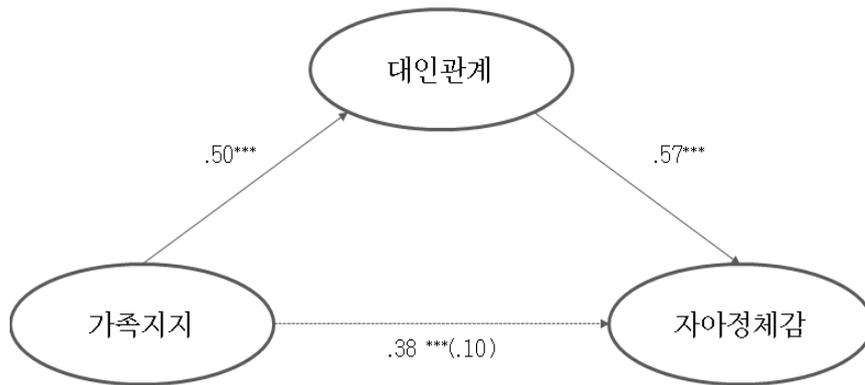
모형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beta$	t
1	가족지지	대인관계	.40	.04	.50	10.04***
			R=.50	R <sup>2</sup> =.25	$\Delta R^2$ =.25	F <sub>(1,301)</sub> =100.80***
2	가족지지	자아정체감	.32	.04	.38	7.18***
			R=.30	R <sup>2</sup> =.15	$\Delta R^2$ =.15	F <sub>(1,301)</sub> =51.50***
3	가족지지	자아정체감	.08	.04	.10	1.87
	대인관계		.59	.06	.57	10.89***
			R=.62	R <sup>2</sup> =.39	$\Delta R^2$ =.24	F <sub>(2,300)</sub> =95.07***

\*\*\*p<.001

Sobel test (Z=7.06, p<.001)

위의 <표IV-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남자의 경우에 있어서 가족지지의 4개 하위요인 가운데 평가적지지가 자아정체감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 1). 이후 대인관계를 추가로 회귀 모형에 투입한 결과(모형 2), 자아정체감에 대한 대인관계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앞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평가적지지의 효과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남자의 경우에는 가족지지와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의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인관계가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확인된 매개효과를 재검증하기 위하여 Sobel(1982)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Z=7.06,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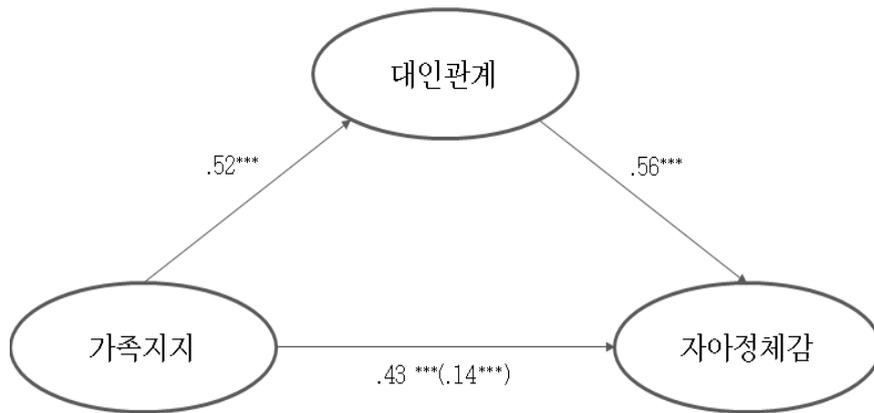
<그림 IV-1> 가족지지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남학생의 대인관계 완전매개효과

아래의 <표 IV-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남자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족지지의 4개 하위요인 가운데 평가적지지가 자아정체감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 1). 이후 대인관계를 추가로 회귀모형에 투입한 결과(모형 2), 자아정체감에 대한 대인관계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적지지의 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여자의 경우에는 가족지지와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인관계보다 가족지지가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표 IV-6> 가족지지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여학생의 대인관계 매개효과

모형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beta$	t
1	가족지지	대인관계	.37	.03	.52	15.02***
		$R=.52 \quad R^2=.27 \quad \Delta R^2=.27 \quad F_{(1,621)}=225.68^{***}$				
2	가족지지	자아정체감	.32	.03	.43	11.91***
		$R=.43 \quad R^2=.19 \quad \Delta R^2=.19 \quad F_{(1,621)}=141.93^{***}$				
3	가족지지 대인관계	자아정체감	.10	.03	.14	3.95***
			.57	.04	.56	15.69***
$R=.65 \quad R^2=.42 \quad \Delta R^2=.23 \quad F_{(2,620)}=222.13^{***}$						

\*\*\* $p<.001$



<그림 IV-2> 가족지지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여학생의 대인관계 부분매개효과

## V. 논의

### 1. 결과 및 의의

본 연구에서는 남녀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지지가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의 매개역할은 어떠한가? 라는 연구문제에서 첫째, 남학생이 지각한 가족지지가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여학생이 지각한 가족지지가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대인관계의 매개역할을 남녀 차이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지지가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대인관계를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남녀 성별로 논의함으로써 중학생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스스로 해결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건강하고 행복한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성차에 따른 대인관계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 및 생활상담지도에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 연구와 관련지어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가족지지와 자아정체감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 한 결과 가족지지와 자아정체감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가족지지의 하위요인과 자아정체감 간에도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지지와 자아정체감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전영호(1992), 김효숙(2003), 김정남, 권윤희(2002), 최지은(2010)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억범(2004)의 연구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유은사(201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및 의미 있는 가족구성원의 지지는 심리적 안정감과 신뢰감을 향상시키고 정신건강과 사회적 관계 능력을 증진하여 핵심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남녀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지지가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의 매개역할은 어떠한가? 라는 연구문제를 살펴보면 첫째, 남학생이 지각한 가족지지가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가족지지와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의 매개역할을 살펴 본 결과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로써 가족지지가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둘째, 여학생이 지각한 가족지지가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가족지지와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의 매개역할을 살펴 본 결과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로써 가족지지가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연희(2006)의 여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인관계 프로그램에서 자아정체감 향상에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고, 윤운성, 이은하(2001)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에니어그램 훈련프로그램에서 대인관계는 자아정체감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남녀 성 차이로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남녀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지지가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는 매개역할은 어떠한가? 라는 연구문제에서 남학생의 경우는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는 부분매개효과로 나타났다. 이로써 대인관계의 매개역할은 남녀 성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남학생의 경우, 부모 및 가족구성원의 칭찬, 존중, 인정, 배려 등의 지지도 영향을 미치지만 친구와 또래 및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더 받고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고 상대방으로부터 이해와 우호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관계로써 사람들과 어울림에 불편함이 없으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유로운 관계를 통해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어 간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친구 및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받지만 가족의

칭찬과 존중 그리고 인정 등 자율적이고 따뜻한 긍정적인 분위기는 여중생의 풍부한 감수성을 촉진하고 가족구성원의 관심과 안정을 통해 인정받고 있음을 느낀다. 이러한 가족지지가 생활사건의 완충제 역할하고 정체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며 심리적 적응을 촉진하여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컨대 가족의 해체 및 분리 등의 상황에서 남학생의 경우는 부모 및 가족구성원으로부터의 긍정적인 지지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친구와 또래 및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건전하고 바람직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간다는 것으로써, 성장앞이 중인 중학교 남학생들에게는 원만한 대인관계의 형성 및 유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여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는 남학생에 비해 부모 및 가족구성원의 영향력을 매우 크게 지각하며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지지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정체감 유예 및 혼미 단계에 머물 수 있다. 다시 말해 학업 및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정신적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자아정체감 형성 과정에서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에 대한 의의는 다음과 같다.

남녀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지지가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의 매개역할은 어떠한가? 라는 연구문제에서 대인관계를 남녀 성차로 살펴해보았다. 남학생에게서 확인된 대인관계의 완전매개효과는 부모와의 분리육구와 갈등을 경험하며 독립적인 사고와 자율성이 함께 발달하는 초기청소년기의 특징인 심리적 이유기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부모로부터 정서적 자립 즉 관계분리를 지향하며 사회화 과정을 통해 대인관계를 경험하고 정체감이 형성되어 간다는 것이다.

반면 여학생은 부분매개효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초기청소년기에 속하는 여학생들의 대인관계 성향이 관계의존, 즉 부모를 비롯한 가족구성원의 칭찬, 존중, 인정 등 친밀감과 신뢰감이 친구나 또래 및 타인의 영향력보다 높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여학생들은 신체, 정서,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가족구성원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높고 소그룹 단위로 친구관계를 맺는 대인관계 성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로써 가족지지와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의 매개역할은 남녀 성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중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는 의미 있는 타인 즉 자신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제공해 주며 유사성을 많이 공유하는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주고받는 상호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 또래, 교사 등 주요 주변인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중학생 시기의 청소년들은 주변인들의 눈을 통해서 자신을 가늠하고 자신에 대한 타인의 의견과 평가를 통해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발달적 특징으로 인해 친구와 또래 및 교사 등과의 관계 맺기 즉 대인관계의 형성 및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 즉 청소년기에 획득된다는 덕목과 강점인 충실성과 성실이 학교 등에서 주로 만나게 되는 친구와 또래, 교사 및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발달되며 핵심과업인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어 간다. 그리고 Freud의 청소년기 심리성적 발달단계 즉 생식기에 해당되는 시기로, 초기청소년기는 잠복되어 있던 성적에너지(리비도)가 되살아나는 시기고 사춘기를 경험하며 2차 성징이 나타나며 리비도의 대상이 동성친구에서 또래의 이성친구로 옮겨하는 시기이다. 아울러 사회, 문화적으로 그 역할에서의 다양성이 존재하며 대인관계 범위가 확장되어 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중학생의 자아정체감은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와 심리성적 발달단계에 따른 성취와 위기, 극복과 좌절 등의 경험과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고 친구와 또래 및 의미 있는 주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하여 형성되어 간다는 점과 함께 중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를 남녀 성차로 구별해 본 점에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족지지와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 가족지지와 대인관계 간의 관계, 대인관계와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시도해 봄으로써 청소년기 중학생의 대인관계에 대한 남녀 성차와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한 연구에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2.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 대상을 제주도내 중학교 1, 2, 3학년 전체를 표본으로 표집해 보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대인관계의 매개변인 외에 참여자의 부모 및 형제 등 인구학적 변인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을 포함한 성차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초기청소년기 중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가족지지와 대인관계 외에 개인 내·외적 변인과 사회·환경적 변인 특히 청소년의 문화적 요소 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여러 변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중학생의 대인관계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친구와 또래 및 교사 등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학교환경에서 중학생의 남녀 성차에 따른 교육적 자료 개발과 상담 및 생활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전략적 접근과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귀애 (2014). 부모-자녀 애착관계가 청소년의 공격성과 대인관계 및 학교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곽금주, 이춘재 (2000). 집단따돌림 경험 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사회적지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65-80.
- 권재현 (2014). 가족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미혼모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시설 미혼모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석만 (1995). 대학생의 대인관계 부적응에 대한 인지행동적 설명모형. 서울대학교 학생생활 연구. 30(1), p38-63.
- \_\_\_\_\_ (2008). 긍정 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 \_\_\_\_\_ (2011).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 심리학. 서울: 학지사.
- 권석만, 김지영(2000) 자기 및 타인 효상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705-726.
- 권영은 (1990). 암환자가 지각하는 사회적지지와 삶의 질과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영 (2009).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계성향의 관계. 충남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란 (2002)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자아존중감.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병수 (2009).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가족건강성 및 문화성향과 대인관계성향 간의 관계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1(4), 2009.12, 91-103.
- 김상순, 이가연, 백경신 (1994).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경북의대협, 35-3.
- 김상희 (2008). 부모 애착과 정서적 자율성, 부모와의 갈등에 따른 청소년 비행의 차이.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미 (2003). 자아성장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자아정체감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영 (2005).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과의 상관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봉, 황혜리 (2016). **상담 및 치료의 이론과 실제**. 시그마프레스.
- 김성원 (2015).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이 중학생의 자아정체성과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애경 (2001). (2001). **내외통제성, 가족의지지, 가족의 응집 및 적응성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9권 6호** 2001.
- 김연숙 (1991). **일도시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미 (2009). **성별에 따라 대인관계 질에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애착 비교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숙, 백경임 (2009) **팔정도를 활용한 자아성장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기개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국불교상담학회지, 1(1), 137-153.**
- 김유경 (1993). **AT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이 대인관계 개선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남, 권윤희 (2002).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3-1.**
- 김정윤 (2000). **아동의 친구관계 질과 학교에 대한 태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창대, 김수임 (2001). **대인관계능력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형태 (1989).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발달 및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영 (2003). **청소년의 바람직한 인터넷 채팅 환경 조성을 위한 제안**.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은 (2010). **부모지지, 심리적 안녕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용인대학교 학생생활연구, 17, 31-56.**
- 김화성 (2014). **초등학교 고학년 다문화가정 학생의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숙 (2003). **가족지지를 통한 기독교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한 연구**. 호남신학대학교 기독교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연희 (2008).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청소년 대인관계 성향간의 관계분석.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혜진 (2007). 청소년의 성별, 가정분위기, 의사소통 유형이 갈등 해결 방식 및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안영, 강영신 (2015). 성격심리학. 학지사.
- 마미숙 (2016).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지위, 가족기능 및 효의식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성산호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성배 (2004). 중학생의 대인관계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아청 (1995). 아이덴티티의 탐색Ⅱ.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_\_\_\_\_ (1996). 한국형 자아정체감검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5(1), 140-162
- \_\_\_\_\_ (2000). 여성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115-126.
- \_\_\_\_\_ (2003). 정체감 교섭과정에서의 교육의 역할. 교육학연구. 41(3), 69-9.
- \_\_\_\_\_ (2006). 건강한 정체감 형성을 위한 교육의 역할. 한국사회과학연구, 25(1), 2253-275
- \_\_\_\_\_ (2010). 에릭슨의 인간이해. 파주: 교육과학사.
- 박영애, 황옥경(1997).부모의 양육행동 및 가족지지와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행동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225-237.
- 박예인 (2016). 가족의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동기의 매개효과.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원모 (2008). 중학생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 분리-개별화 및 대인관계문제간의 관계.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주 (1994).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유형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방문희 (1991).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대인관계 성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성희 (2000). 가족지지 및 인성특성과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봉연 (2001). 한국 초중고생의 논리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의 진단 및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 **인간발달연구**, 8(1), 63-75.
- 서연희 (2011). 동거여부와 가족지지가 노인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수나 (2015). 중학생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스트로크 중심 TA집단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병환, 이선영 (2000). 아동과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대한 연구. **교육학논총**, 21(2), 141-159.
- 손정주 (2010). 가족지지가 청소년의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논문학위.
- 송현옥, 박아청 (2009).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간의 구조분석. 계명대학교, **교육심리연구** 23-2, 267-321.
- 신경원 (2010). 중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재은 (2000). 초기 청소년의 우정관계와 또래공격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153-165.
- 신현순 (2000). **이동과 청소년의 정서 장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안범희 (2010). **대인관계론**. 서울태영출판사.
- 양순미 (2017). 농촌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참여활동경험 수준이 대인관계 향상에 미치는 효과분석-청소년기 대인관계기제로 작용하는 유의미한 대상에 관한 Bowlby와 Sullivan의 관점 비교 중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8(4), 2017.11, 625-640.
- 양지웅 (2004).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상태에 대한 성별 및 학년별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18). **청소년 현장**
- 우영숙 (2014). **대인관계증진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대**

- 인관계지능,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상숙, 최용민 (2015). 청소년의 가족건강성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정체감, 대인관계의 매개효과.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15, 21-50.
- 유명진, 손강숙 (2015). 중학생의 대인관계와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또래지지의 조절효과. **발달지원연구**, 4-2, 131-159.
- 유은사 (2014). 노인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가족지지, 사회적지지의 영향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사회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운성, 이은하 (2001). 에니어그램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학생생활연구**, Vol.5 No.-, [2001]
- 윤정연 (2000). 청소년의 자기분화와 대인관계 성향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문행 (1994). 가족기능성이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봉순 (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자아정체감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억범 (2004). 대학생의 다중지능과 환경변인이 진로결정수준 및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차선 (2000). 가정환경, 학교환경,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2, 109-138.
- 이학식 (2012). **회귀분석: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서울: 집현전
- 이형득 (1998). **인간관계훈련의 실제**, 중앙적성출판사.
- 임동숙 (2000). 중학생의 대인관계성향과 학교활동과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은영 (2005). 자기주도적 학습이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숙희 (1991). 입원환자가 지각한 가족지지와 상태불안과의 관계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용언 (2012). 가족만족도가 중학생의 등교공포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과 대인관계기술의 매개효과와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11, 299-327.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7). 2016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생활실태조사
- 전명순 (2012).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영호 (1992).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교회교육의 영향**. 침례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경희, 김성희 (2013). 중학생 대인관계 조화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14(1), 657-676.
- 정대연 (1997). **사회과학방법론사전**. 백의출판사.
- 정운정 (2009). **대학생의 가족지지, 진로정체감, 진로신념과의 관계분석**.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숙 (2011). **중학생의 외모만족도와 대인관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화식 (2014). **청소년의 대인관계특성과 SNS(Social Network Service) 이용동기 관계**.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연희 (2006). **대인관계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명자 (2017)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및 공감능력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보가 (2001). **취학 전 아동의 개인 및 가족적 특성이 마음의 이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보영 (2013).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내·외적 직업가치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21(1), 1-17.
- 최지은 (2010). **가족·친구·교사의 지지가 중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비교**.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17). **청소년 통계, 여성가족부**
- 한영주, 채선기, 김수진, 최정호 (2015). **중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한 ‘십오통활(十五通活)’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검증**. **청소년학연구**, 22(12), 249-277.

- 한상철 (1998). 청소년지도 프로그램 평가모형 개발에 관한 이론적 고찰. *청소년학연구* 5(1), 53-76.
- 홍경자 (2004). 청소년의 인성교육. 서울: 학지사.
- 황인정 (2008). *청소년의 무용활동 참여에 따른 대인관계성향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창순 (2006). 초기 청소년기의 부모 및 또래애착과 애착의 변화. *한국청소년연구*, 43, 201-225.
- 황효진, 이용남 (2012). 중학생의 또래관계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교육연구*, 35, 25-52
- Ahnn BH (2016)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oul: Taeyeongbook Press
- Belle, D., & Longfellow, C. (1985). "*Config as a coping strategy*". Unpublished manuscript. Boston University.
- Benenson J. F. (1990). Gender differences in social network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0(4), 472-495
- Berndt, T. J., & Keefe, K.(1996). *Friend's influence on school adjustment: A motivational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plan, G, & Killilea, M. (1976). *Support Systems and Mutual Help*. New York: Grune and Stratton.
- Chris S, Melissa T (2007)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mediate the association between social skil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Person Indi Differ* 43(4), 637-646
- Clarkson SH (1992) *The international field in transactional analysis*. *TA J* 22, 92-98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Vol.38, No.5, PP.300-314.
- D. A. Hamburg (1967). *A Perspective in Coping Behavio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Vol. 17. 277-284
- E. H. Erikson (1959). *Identit' und Lebenszyklus*.
- \_\_\_\_\_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 Company Inc. 9.
- \_\_\_\_\_ (1975). *Dimensions of a new identity*.
- \_\_\_\_\_ (1980).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Y: W. W. Norton & Co.E.
- Frank, S. J., Prisch, L. A., & Wright, V. C.(1992). *Autonomy from parents and competence during early adulthood*. Paper to be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 C.
- Furman. W. & Buhrmester. D.(1985b).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6, 1016-1024
- Johnson, D. W. (1990). *Reaching out: Interpersonal effectiveness and self-actualization*, 5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Kane, C. F. (1988). *Family Social Support : Toward a Conceptual Model*, *Advance in Nursing Science*, Vol.10, No.2, 18-25.
- Kaplan, B. H., Cassel, J. C., & Gore, S. (1977). "Social Support and Health", *Medical Care* , 1(15), 47-58.
- Kim SR (2016) *The influence of parents attachment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on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ncept and self-differentiation*.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 Kwon SM (2004). *Psychology of human relationships*. Seoul: Hakjisa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2008). *A study on act plans and development of core competencies for adolescent III: Social Interaction Area*
- Nazio, J. D. (2013). 위기의 청소년(Comment agir avec un adolescent en crise?), (임말희 역), 서울: NUN. (2010년 원저 발간)
- Noh AY, Kang YS(2015) *Personality psychology*. Seoul: Hakjisa.
- P. Hollen (1981) *A Hollistic Model of Individual and Familu Health Based on Choice*. *Advances in Nursing Science*, July. 27.
- Rubin, K. H. (1985). *Socially withdrawn children: An "at risk" population?*.

- In Children's peer relations: Issues in assessment and intervention*  
(pp. 125-139). Springer US
- S.O. Hampe (1975). *Needs of the Grieving Spouse in a Holistic Setting*.  
Nursing Research, Vol. 24, 113-119
- Sullivan HS(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 Suls, J. M, & Greenwald, A G.(Eds.)(1982).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self*. Vol.1.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 Turner. R. J. (1981). *Social support as a Contingency i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357-367
- Wie HW (2009). *The effect of Korean traditional plays on the emotions,  
interpersonal relations, and self-esteem of persons with  
schizophrenia*. J Korean Acad Psych Ment Heal Nurs 18(1), 1-10

<Abstract>

**Effect of the family support on the establishment  
of ego identity for middle school students:  
The comparative study for mediating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by gender**

**Oh Myung Ae**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Adviser : Choi Bo Young**

This research observed the role of familiar support on ego identity building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verified the gender differences in mediating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860 male and female students in 5 middle schools in Jeju areas were surveyed, 806 samples were collected and 779 of those were used for the research excluding the non-responsive and faulty samples.

The familiar support scale utilized in this research was a devised scale from Dobow and Ullman (1989)'s research on inter-family relations from 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 and the ego identity barometers, the Korean Ego Identity Test, introduced by Park A-Chung (1996) and revised by Lee Hyun-joo (2009) in her research. The change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was measured by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change scale by Schleim

and Guernsey (1975) implemented on the study of Lee Hyoung-deuk and Moon Seon-mo in 1980.

The accolated data was analysed by SPSS 18.0. In order to verif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data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Technological Survey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respectively. Also,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the role of familiar support in the establishment of ego identity, Three-Leve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and in order to validify the results, Sobel Test was also conducted. Based on the series of analysi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the following:

First, the familiar support and ego identity as well as the familiar support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demonstrated the positive correlations and the effects on middle school students were present in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Second, for the male students, complete mediation effect was present in the role of interpersonal medicating effect on the establishment of ego identity. However, the female students only showed partial mediation effects.

The research is significant in the sense that it illustrated the gender differences in the rol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ego identity building in early teens. Therefore, the study can be utilized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gender differentiated school educations and directives as well as counselling in educational environment.

**Key works : familiar support, middle school students, ego identity, mediating effects, gender difference**

☺ 설 문 지 ☺

안녕하십니까?

바쁜 학업 가운데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설문에 참여해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중학생들의 가족지지, 자아정체감, 대인관계에 관한 연구로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며 조사결과는 통계법 제13조2항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며 오직 학문적 연구 자료로만 사용될 것이며 절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학생 여러분의 진솔한 응답은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될 것입니다.  
다소 응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더라도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구에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7 년 9 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석사과정 : 오 명 애  
지도교수 : 최 보 영

[omeo66@hanmail.net](mailto:omeo66@hanmail.net)

★ 다음은 여러분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료처리를 정확하게하기 위한 것이니 아래 사항을 빠짐없이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      )    ② 여성 (      )
귀하의 연령은?	만 (      ) 세
귀하의 학년은?	① 1학년 (      )    ② 2학년 (      )

★ 다음은 여러분의 가족지지에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어보시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과 가깝다고 여겨지는 곳에 ‘○’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가족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를 사랑으로 보살피고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	나의 고민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기꺼이 들어 줄 것이다	1	2	3	4	5
3	내게 친밀감을 느끼게 한다	1	2	3	4	5
4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준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5	나에게는 내가 어려울 때 같이 의논을 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이 있다	1	2	3	4	5
6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기분을 전환시켜 주려고 할 것이다	1	2	3	4	5
7	내가 어려울 때 격려와 용기를 줄 것이다	1	2	3	4	5
8	내가 하는 일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나의 일을 인정해 준다	1	2	3	4	5
9	나를 우리 가족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할 것이다	1	2	3	4	5
10	내가 잘 했을 때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11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1	2	3	4	5
12	나를 잘 이해해 준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3	나를 우리 가족 구성원 중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14	가족끼리 서로서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5	나와 우리 가족들은 서로 많은 일을 도와준다	1	2	3	4	5

★ 다음은 여러분의 대인관계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어보시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과 가깝다고 여겨지는 곳에 ‘○’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 자신이 만족스럽다	1	2	3	4	5
2	나는 나와 가까운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1	2	3	4	5
3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만족스러워 할 것이다	1	2	3	4	5
4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만족스러워 한다	1	2	3	4	5
5	다른 사람과 나는 문제없이 잘 지낸다	1	2	3	4	5
6	나는 다른 사람이 원하거나 바라는 것을 잘 안다	1	2	3	4	5
7	나는 나 자신의 감정을 잘 안다	1	2	3	4	5
8	나는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1	2	3	4	5
9	나는 다른 사람과 말하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10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표정에 대해 반응이 빠르다	1	2	3	4	5
11	나는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갖고 다가간다.	1	2	3	4	5
12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1	2	3	4	5
13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잘 알아차린다.	1	2	3	4	5
14	나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의 뜻을 잘 알아듣는다.	1	2	3	4	5
15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믿는다.	1	2	3	4	5
16	나는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낸다.	1	2	3	4	5
17	나는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지내는 것이 좋다	1	2	3	4	5
18	나는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경우 서로 만족스럽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1	2	3	4	5
19	나는 다른 사람과 말을 적게 한다.	1	2	3	4	5
20	나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감정을 자주 표현한다.	1	2	3	4	5
21	나는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표현한다.	1	2	3	4	5
22	나는 나의 개인적인 일에 대해 다른 사람과 함께 자주 이야기한다.	1	2	3	4	5
23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 좋은 점을 표현할 경우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다.	1	2	3	4	5
24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 고쳐야 할 점에 대해 말해주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다.	1	2	3	4	5
25	내가 아는 사람과 미래에 어떤 인간관계를 만들지에 대해 알고 있다	1	2	3	4	5

★ 다음은 여러분의 자선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어보시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과 가깝다고 여겨지는 곳에 '○'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	1	2	3	4	5
2	나는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 한 존재이다	1	2	3	4	5
3	나는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잘 모른다	1	2	3	4	5
4	나는 일을 시작할 때는 열성을 보이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	1	2	3	4	5
5	나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무턱대고 따르는 편이다	1	2	3	4	5
6	나는 모임에 나가면 가급적 사람이 적은 곳이나 구석에 앉는다	1	2	3	4	5
7	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1	2	3	4	5
8	나는 내 자신이 보잘 것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1	2	3	4	5
9	나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를 분명히 알고 있다	1	2	3	4	5
10	나는 한 가지 일에 꾸준히 몰두하지 못한다	1	2	3	4	5
11	나는 다른 사람이 하자는 대로 잘 이끄러는 편이다	1	2	3	4	5
12	나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한다	1	2	3	4	5
13	내 일은 내가 알아서 스스로 처리한다	1	2	3	4	5
14	나는 우리 집에서 꼭 필요한 존재이다	1	2	3	4	5
15	나는 장차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 스스로 잘 모르겠다	1	2	3	4	5
16	나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17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다	1	2	3	4	5
18	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마음이 불편하다	1	2	3	4	5
19	나는 내 판단에 자신이 있다	1	2	3	4	5
20	나는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1	2	3	4	5
21	나는 장차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지 알고 있다	1	2	3	4	5
22	나는 계획한 대로 일을 끝까지 실행하지 못하는 편이다	1	2	3	4	5
23	나는 혼자서는 어떤 일을 결정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24	나는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앞에 나서기가 두렵다	1	2	3	4	5
25	나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간다	1	2	3	4	5

번호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6	나는 이 세상일은 결국 허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27	나는 장차 나의 진로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28	나는 빈둥거리며 많은 시간을 허송(허비)하는 편이다	1	2	3	4	5
29	나는 다른 사람을 이끌기보다는 따라가는 편이다	1	2	3	4	5
30	나는 할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다	1	2	3	4	5
31	나는 지금의 내 모습 이대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1	2	3	4	5
32	나는 이 세상을 잘 살아갈 것 같지가 않다	1	2	3	4	5
33	나는 장래가 무슨 직업을 택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가 없다	1	2	3	4	5
34	나는 일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1	2	3	4	5
35	나는 결단력이 부족한 것 같다	1	2	3	4	5
36	나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유별나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한다	1	2	3	4	5
37	나는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다	1	2	3	4	5
38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9	나는 나 자신의 삶의 목표를 뚜렷이 정해놓고 있다	1	2	3	4	5
40	나는 어렵거나 힘든 일은 피하는 편이다	1	2	3	4	5
41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하기보다는 남들의 좋은 생각을 기다린다	1	2	3	4	5
42	나는 가족 모임에서 지도자 역할을 기꺼이 맡는 편이다	1	2	3	4	5
43	나는 일단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고야 만다	1	2	3	4	5
44	나는 내 자신을 근본적으로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45	나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1	2	3	4	5
46	나는 남보다 잘 하는 일이 별로 없는 편이다	1	2	3	4	5
47	나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쉽게 영향을 받는 편이다	1	2	3	4	5
48	나는 낯선 곳에 가거나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편이다	1	2	3	4	5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